

# 신지에 대역전극

### 지은희 제치고 시즌 2승...최단기 상금 5억 돌파

#### KLPGA 서경여자오픈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의 에이스 신지에(19·하이마트·사진)가 대역전극을 펼치며 올 시즌 두번째 우승컵에 입을 맞췄다.

신지에는 3일 경기도 광주 뉴서울골프장 북코스에서 열린 힐스테이트 서경 여자 오픈대회 최종일 3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 6개를 쓸어 담는 신들린 샷을 뽑아내며 최종 합계 12언더파 204타의 성적을 적어내 지은희(21·캘러웨이), 안선주(20·하이마트) 등 우승 경쟁자들을 가볍게 따돌렸다. 지난 4월 MBC투어 엘스스퀘어컵 크라운CC 여자오픈에 이은 두번째 우승. 우승 상금 6천만원을 보탠 신지에는 프



로 데뷔 1년 7개월 2일만에 통산 상금 5억2천만원을 벌어들여 2000년 김미현(30·KTF)이 세웠던 최단 기간 5억원 돌파 기록(4년7개월2일)을 성취 앞당겼다. 시즌 3승을 노렸던 지은희는 신지에에 1타 뒤진 11언더파 205타로 2위, 역시 3승을 기대했던 안선주와 아마추어 풀풀을 일으켰던 최혜용(17·예문여고)은 공동 3위에 올랐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박남신 '노장의 힘'

### 연장서 강경남과 접전...7년만에 정상 환호

#### KPGA 금호아시아나 오픈

한국프로골프(KPGA)의 신·구세대간의 피 말리는 접전은 50세를 바라보는 박남신(48·사진)의 승리로 끝났다.

박남신은 3일 경기도 용인 아시안골프장 동코스(파72·6천750야드)에서 열린 SBS 코리아투어 금호아시아나오픈 최종일 4라운드에서 지난해 상금왕 강경남(24·삼화저축은행)과 5언더파 283타로 동타를 이룬 뒤 연장에서 천금 같은 파퍼트를 성공시키며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아이언샷의 달인'으로 불렸던 박남신은 1988년과 1989년, 1993년 세차례 상금왕에 오르는 등 전성기를 누렸지만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2000년 호남오픈과 SK텔레콤클래식 우승 이후 정상에 오르지 못했다.

2006년에는 상금 순위 90위로 밀려 웰리파인스쿨을 통해 올 시즌에 합류하는 어려움도 겪었다.

하지만 노련한 경기 운영을 앞세운 박남신은 앞서 열린 4개 대회에서 모두 20대 선수들이 우승한 판세를 뒤집고 해의 대회를 포함해 통산 21번째 우승컵을 수신했다.

철퍼연조에 속한 강경남, 김경태(21·신



한은행)와 베테랑 김종덕(46·나노소울)의 우승 경쟁이 예상됐던 4라운드 후반으로 가면서 우승 후 보들의 실수가 이어져 우승컵의 향방을 알 수 없게 만들었다. 전날 선두였던 김경태는 17번홀과 18번홀(이상 파4)에서 연속 더블보기를 범하는 등 6오버파 78타를 쳐 최종 합계 2언더파 286타, 4위로 밀려났고 김종덕도 4오버파 76타를 친 끝에 합계 3언더파 285타, 3위로 경기를 마쳤다.

박남신은 철퍼연조에 앞서 경기를 끝낸 뒤 1타 앞서던 강경남이 18번홀에서 보기를 범하는 바람에 연장으로 가는 행운을 잡았다.

연장 첫번째 홀인 18번홀에서 박남신과 강경남은 똑같이 두번째 샷을 그린 뒤로 넘겨 위기를 맞았다. 하지만 강경남이 3온 2퍼트로 홀아웃 한 뒤 박남신은 칩샷을 편 옆 3m에 붙인 뒤 파퍼트를 성공시켜 승부에 마침점을 찍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최경주 PGA 메모리얼토너먼트 3R 7위

'탱크' 최경주(37·나이키골프)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메모리얼토너먼트 셋째날 톱10에 진입했다.

최경주는 3일(한국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의 퓨어필드빌리지골프장(파72·7천366야드)에서 열린 대회 3라운드에서 버디만 5개를 뽑는 깔끔한 플레이로 합계 10언더파 206타로 선두에 5타 뒤진 공동 7위가 됐다.

105명의 세계 정상급 선수들에게만 출전 기회가 주어지는 이번 대회에 7년 연속 나온 최경주는 3라운드까지 83.3%의 페어웨이 안착률을 보이며 시즌 네 번째 톱

10 진입 가능성을 높였다. 15언더파 201타로 단독 선두인 로드 펄링(호주)과는 차이가 좀 있지만 공동 2위인 손 오혜어(미국), 아담 스킵(호주)과는 2타 차이에 불과해 마지막 라운드에서 더 순위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번 시즌 최고 성적은 1월 소니오픈에서 거뒀던 공동 4위다. 최경주에 1타 앞선 윌 매켄지, 스텐트 싱크(이상 미국), 에런 배틀리(호주)가 공동 4위권을 형성했고, 조프 오길비(호주), 라이언 무어(미국)가 최경주와 나란히 공동 7위에 올랐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김도연·염순자 정상 '스트라이크'

#### 광주시협회장기 불링 남녀 개인

김도연(27)이 제21회 광주광역시 협회장기 남녀 불링대회에서 우승했다.

김도연은 지난 2~3일 광주 테리볼링장에서 열린 남자 개인전에서 6게임 합계 1천297점을 기록, 2위 박기정을 물리치고 1위에 올랐다. 여자부 개인전에서는 염순자

(39)가 6게임 합계 1천224점을 기록해 우승했다.

단체전 남자부와 여자부에서는 각각 김도연·김경덕·서혁남조(12게임 합계 2천644점)와 전명자·김민희·김미자 조(12게임 합계 2천291점)가 1위에 올랐다.

한편 이번대회에는 광주지역 선수 아마추어 불링 200여명이 참가 기량을 겨뤘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호주 '비치발리볼 킨'

3일 한강시민공원 잠실지구에서 열린 세계여자비치발리볼 월드컵대회 호주의 비넷트-죽조와 중국의 티엔 지아-왕조의 결승 경기에서 중국의 티엔 지아가 몸을 날리는 멋진 수비를 펼치고 있다. 비넷트-죽 조는 중국의 티엔 지아-왕조를 누르고 우승을 차지했다. /연합뉴스

	1회
KIA	0
롯데	10

# 더이상 보고 싶지 않다

### KIA, 마운드 초토화·방망이 5안타 빈공...롯데에 1-12 대패



"다 바꾸겠다. 그래도 안되면 내년을 준비하는 체제로 가겠다."

"꿀재 사람탑" 서정환 KIA 감독은 지난 2일 롯데와의 경기에서 앞서 선수단을 "집합" 시켰다. 서 감독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모조리 바꾸겠다. 나는 내년까지 계약돼 있다. 이대로 간다면 아예 내년을 준비하는 체제로도 갈 수 있다"고 엄포를 쳤다. 사실상 올 시즌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폭탄선언'을 한 것이다.

그리곤 '본보기'로 최근 타격부진에 빠진 이재주와 지난 1일 경기에서 어이없는 실책으로 패배(1-2)의 빌미를 제공한 김종국을 2군으로 내려보냈다. 대신 해외파 복귀 선수인 권민민과 3루수 김주형을 불러 올렸다.

하지만 2일 롯데전에서도 '자극요법'은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 오히려 감독의 엄포에 선수들의 긴장감이 더해지고, 실수만 연발했다. 손지환은 베이스에 걸려 넘어지면서 더블플레이를 놓쳐 '부산 갈매기'들의 웃음거리가 됐고, 이현근은 1루에서 플라이가 잡히는 것도 모르고 전력 질주하다 '횡사'를 당하기도 했다. 4-6 패.

서 감독은 3일 특단의 대책으로 선발 타순을 대폭 조정했다. 이현근을 3번에 배치하고 장성호가 4번에 자리를 잡았다. 포수 송산은 5번, 김주형은 6번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차세대 거포' 김주형만 홈런 한방으로 제 역할을 했을 뿐, 무기력한 모습은 여전했다. 마운드도 1회를 넘기지 못하고 대거 10실점하며 무너졌다. 롯데에 3연패를 당한 서 감독의 표정은 일그러졌고, TV 중계를 보던 KIA팬들도 채널을 돌렸다.

KIA는 3일 사직구장에서 계속된 롯데와의 경기에서 선

발 김희걸의 제구력 난조와 터지지 않는 답답한 타선 탓에 1-12로 대패했다.

KIA 선발 김희걸은 0.1이닝동안 1피안타 4볼넷 4실점했고, 이어던진 차정민은 한 타자도 잡지 못하고 3피안타 3실점했다. 마운드를 넘겨받은 진민호는 나머지 두 타자를 잡는 '값'으로 4피안타 1볼넷 3실점을 내줘야 했다. 롯데 타선은 1회에 한 바퀴를 돌아 14명이 타석에 들어섰고 10점을 뽑아냈다. 산발 5안타에 그친 KIA 타선은 2회 김주형의 좌월 솔로포로 '영봉패'의 수모만 겨우 면했다.

한편 신임용병 로드리게스는 이날 6회 마운드에 올라 첫 타자인 롯데 김문호에게 1구째에 우월 솔로포를 얻어맞고 2이닝동안 1피안타 1실점했다.

이 밖에 5연패의 늪에 빠졌던 SK는 베테랑 포수 박경완의 3연타석 홈런에 힘입어 현대에 4-3으로 승리, 4일만에 선두로 복귀했고, 삼성은 한화에 2-1, 두산은 LG에 1-0으로 짜릿한 1점차 승리를 거뒀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6일 복귀 김·진·우 8일 출격

# 진흥고, 청룡기야구 8강 진출

진흥고가 제62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에서 8강에 진출했다.

1회전을 부전승으로 통과한 진흥고는 지난 2일 서울 동대문야구장에서 열린 대회 나흘째 2회전에서 선발 임요한의 9이닝 8피안타 2실점 완투피칭을 앞세워 성남고를 3-2로 꺾었다.

진흥고는 5회초 상대 실책과 내야 안타로 만든 1사 1루에서 1루에 있던 정형식이 2루 도루를 시도했고, 포수의 송구가 뒤로 빠

지는 틈을 타 3루 주자가 홈을 밟았다. 진흥고는 계속된 1사 2루에서 8번 타자 이성욱의 1타점 적시타로 2-0 리드를 잡았다.

하지만 성남고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다. 성남고는 8회 안타 3개와 실책을 묶어 2-2 동점을 만들었다. 반격에 나선 광주진흥고는 9회 초 2사 1루에서 8번 타자 이성욱이 1타점 중전 안타로 결승점을 올렸다. 한편 화성고는 3일 열린 대진고와의 경기에서 2-4로 패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김병현 잘 던졌는데

### 구원진 부진...승리 놓쳐



'한국산 핵잡수함' 김병현(28·플로리다 말린스)이 2경기 연속 안타 3개만 내주는 눈부신 호투를 펼쳤으나 구원진의 난조로 승리를 놓쳤다.

김병현은 3일(한국시간) 위스콘신주 밀워키 밀러 파크에서 벌어진 미국프로야구 밀워키 브루어스와 방탄 경기에서 선발 등판, 6이닝 동안 안타 3개를 맞고 1점만 내준 뒤 2-1로 앞선 7회 타석 때 대타로 교체됐다.

승리 요건을 안았지만 7회말 구원 나온 렌 엘리 핀토가 대타 코리 하트에게 동점 솔로포를 허용하는 바람에 김병현의 승리는 허공으로 날아가 버렸다. 한편 이날 플로리다의 5-2로 이겼다.